

## 氣口人迎脈의 ‘關前一分處’ 比定과 關脈 形成過程의 相關성에 관한 研究

김정규

대전대학교

---

### Abstract

---

The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of fixing the Ki-Gu(氣口) pulse and the Yin-Yeong(人迎) pulse in front of Kwan(關) the distance of 1 Pun(分) and the development of the Kwan-Pulse(關脈)

Kim Jeong Gyu

*Depar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Nae-Kyeong(內經)> the Ki-Gu(氣口) pulse and the Yin-Yeong(人迎) pulse are the arterial pulsation position of the Lung Channel of Hand-Taeuem(手太陰) and the Stomach Channel of Foot-Yangmyeong(足陽明). At the pulses we can examine the circulation of Ki-Hyeol(氣血), the balance of Uem-Yang(陰陽), the deficiency and excess of the diseases, whether the disease is in Uem-Channel(陰經) or Yang-Channel(陽經), whether the disease is internal injury or external injury.

In <Maek-Kyeong(脈經)> the Ki-Gu(氣口) pulse and the Yin-Yeong(人迎) pulse are in front of the Right-Kwan(右關) and the Left-Kwan(左關) the distance of 1 Pun(分) because of completion of the Chon-Ku-Pulse-Taking(寸口脈診). The purpose of examination is same to <Nae-Kyeong(內經)>.

In <Nan-Kyeong(難經)> the Kwan-Pulse(關脈) doesn't have the position. It has only the role of a gateway of the circulation of Ki-Hyeol(氣血), the balance of Uem-Yang(陰陽). And it is same to role of the Ki-Gu(氣口) pulse and the Yin-Yeong(人迎) pulse in <Maek-Kyeong(脈經)>.

So we can think that the Kwan-Pulse(關脈) in <Nan-Kyeong(難經)> and the Ki-Gu(氣口) pulse and the Yin-Yeong(人迎) pulse in <Maek-Kyeong(脈經)> are the same thing. And we must have the different standard when examine the condition of Sam-Cho(三焦) and the circulation of Ki-Hyeol(氣血), the balance of Uem-Yang(陰陽) because the position of the Kwan-Pulse(關脈) came out after the time of <Maek-Kyeong(脈經)>.

#### **Key Words:**

Ki-Gu(氣口), Yin-Yeong(人迎), Kwan-Pulse(關脈)

---

\* 교신저자 : 김정규 / 소속: 대전대학교

TEL : 042-823-8835 / E-mail : [kjgpsy@hanmail.net](mailto:kjgpsy@hanmail.net)

Received for publication December 14, 2009 ; accepted December 28, 2009

## I. 緒論

<內經>의 遍診法이 寸口脈診으로 轉化되는 과정은 동양의학의 발전과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後世脈法<sup>1)</sup>의 完成은 王叔和의 <脈經>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의 일환이 氣口人迎脈을 寸口脈에 比定한 것이고, 後世의 많은 醫家들은 王叔和의 氣口人迎學說을 근거로 脈學을 발전시켜왔다.

복잡하지만 현실에 가까운 듯 보이는 遍診法이 그 방법은 간편한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것처럼 비쳐지는 寸口脈診法으로 轉化되는 과정은 全身을 局所의 부위에 象徵化하려는 全息論的인 思考體系가 作用된 결과이다. 그러한 정신은 <脈經>에서 左右寸口脈에 氣口人迎脈을 比定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轉化過程은 <內經>, <難經>, <脈經>의 考察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sup>2)</sup>.

특히 獨取寸口의 사고가 처음 제시되는 <難經>은 <內經>의 遍診法이 <脈經>의 寸口脈診으로 轉換되는 中間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氣口人迎脈의 轉化過程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sup>3)</sup>.

筆者는 脈學의 醫史學的 發展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성된 모습으로 臨床에 적용되는

脈診의 기법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발전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란 사실을 숙지하였고, 그 일환으로 근대의 氣口人迎脈診의 形成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知見을 얻게 된 바,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氣口人迎脈

#### 1) <內經>의 氣口人迎脈<sup>4)</sup>

“凡十一藏 取決於膽也 故人迎 一盛 病在少陽 二盛 病在太陽 三盛 病在陽明 四盛已上 爲格陽 寸口 一盛 病在厥陰 二盛 病在少陰 三盛 病在太陰 四盛已上 爲關陰 人迎與寸口 俱盛 四倍已上 爲關格 關格之脈 羸 不能極於天地之精氣 則死矣”<素問·六節藏象論><sup>5)</sup>

膽이 半表半裏, 升降의 樞로서 十一臟의 決斷을 취한다는 내용과 氣口脈과 人迎脈의 不調和 정도에 따른 氣血의 造化상태를 파악하는 診斷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內經>에서는 氣口脈과 人迎脈으로 氣血升降과 陰陽調和를 살피는 길목과 같은 역할을 부여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病熱者 陽脈也 以三陽之動也 人迎一盛 少陽 二盛 太陽 三盛 陽明 入陰也 夫陽入於陰 故病在

1) 趙恩儉 主編의 <中醫脈診學>에서는 <脈經> 이전의 脈診을 古代脈法으로 <脈經> 이후의 脈診을 後世脈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2)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氣口人迎을 비교하는 脈診法에 대한 내용이 없다.

3) <難經>에서는 獨取寸口의 가능성만이 제시되어 있고, 완성되지는 못하였는데, 寸關尺定位, 臟腑配屬 등은 <脈經>에 이르러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難經>은 脈學의 發展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古典이라 할 수 있다.

4) <內經>의 脈診法은 遍診法, 三部九候法, 氣口人迎脈法, 寸口脈法, 尺膚比交脈法 등 다양하며 寸口脈法에서 寸口の 脈象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尺膚比較脈法에서 尺膚와 氣口, 尺膚와 人迎을 비교하는 脈法이 다수 소개되는데, 본 論考에서는 氣口脈과 人迎脈을 비교하는 脈法의 내용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5)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7.

頭與腹 乃臍脹而頭痛也” <素問·腹中論>6)

人迎의 盛衰로 三陽의 動함과 熱證과 같은 陽證의 變化를 살핀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人迎者 胃脈也 逆而盛 則熱聚於胃口而不行 故胃脘 爲癰也” <素問·病能論>7)

人迎이 胃經의 脈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人迎의 異常으로 胃脘部의 異常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身熱如炭 頸膺如格 人迎躁盛 喘息氣逆 此有餘也” <素問·奇病論>8)

人迎脈의 躁盛이 有餘證의 중요한 指標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夫子言察陰陽所在而調之 論言人迎與寸口相應 若引繩 小大齊等 命曰平 陰之所在寸口” <素問·至真要大論>9)

人迎脈과 寸口脈이 調和를 이룬 상태가 正常의 상태라는 것과 寸口脈으로는 陰分의 상태를 살핀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 <靈樞·本輸>10)

人迎이 足陽明經에 속하면서 頸部에 위치함을 말하고 있다.

6)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59.

7)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8.

8)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3.

9)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1.

10)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9.

“終始者 經脈爲紀 持其脈口人迎 以知陰陽有餘不足 平與不平 天道畢矣 所謂平人者不病 不病者 脈口人迎應四時也 上下相應而俱往來也 六經之脈 不結動也 本末之寒溫之相守司也 形肉血氣必相稱也 是謂平人 少氣者 脈口人迎俱少 而不稱尺寸也 如是者 則陰陽俱不足 補陽則陰竭 瀉陰則陽脫 如是者 可將以甘藥 不可飲以至劑 如此者 弗灸 不已者 因而瀉之 則五藏氣壞矣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爲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命曰關格 關格者 與之短期 人迎一盛 瀉足少陽而補足厥陰 二瀉一補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人迎二盛 瀉足太陽 補足少陰 二瀉一補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人迎三盛 瀉足陽明而補足太陰 二瀉一補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脈口一盛 瀉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瀉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疏而取上 氣和乃止 脈口二盛 瀉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瀉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疎取之上 氣和乃止 脈口三盛 瀉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瀉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疏而取之上 氣和乃止 所以日二取之者 陽明主胃 大富于穀氣 故可日二取之也 人迎與脈口俱盛三倍已上 命曰陰陽俱溢 如是者不開 則血脈閉塞 氣無所行 流淫于中 五藏內傷” <靈樞·終始>11)

脈口(氣口)와 人迎으로 陰陽의 有餘不足, 陰陽

11)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402-403.

의 調和를 살피고 經氣의 循環(終始)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人迎으로 陽分의 상태를, 脈口로 陰分의 상태를 살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태에 따른 治療法을 標本中の 原理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肺手太陰之脈 … 盛者 寸口大三倍于人迎 虛者 則寸口反小于人迎也. 大腸手陽明之脈 … 盛者 人迎大三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胃足陽明之脈 … 盛者 人迎大三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脾足太陰之脈 … 盛者 寸口大三倍于人迎 虛者 寸口反小于人迎也. 心手少陰之脈 … 寸口大再倍于人迎 虛者 寸口反小于人迎也. 小腸手太陽之脈 … 盛者 人迎大再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于寸口也. 膀胱足太陽之脈 … 盛者 人迎大再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于寸口也. 腎足少陰之脈 … 盛者 寸口大再倍于人迎 虛者 寸口反少于人迎也.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盛者 寸口大一倍于人迎 虛者 寸口反小于人迎也. 三焦手少陽之脈…盛者 人迎大一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于寸口也. 膽足少陽之脈…盛者 人迎大一倍于寸口 虛者 人迎反小于寸口也. 肝足厥陰之脈…盛者 寸口大一倍于人迎 虛者 寸口反小于人迎也.” <靈樞·經脈><sup>12)</sup>

寸口(氣口)는 陰經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人迎은 陽經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陰陽의 多少에 따라 盛한 정도도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持氣口人迎以視其脈 堅且盛且滑者 病日進 脈軟者 病將下 諸經實者 病三日已 氣口候陰 人迎候陽也”<靈樞·四時氣><sup>13)</sup>

12)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409-423.

氣口로 陰을 살피고 人迎으로 陽을 살피는데 脈象이 和緩軟滑한 정도에 따라 病의 预后를 파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頸側之動脈人迎 人迎 足陽明也” <靈樞·寒熱病><sup>14)</sup>

人迎이 頸側部の 動脈으로 足陽明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熱病三日 而氣口靜 人迎躁者 取之諸陽 五十九刺 以瀉其熱而出其汗 實其陰以補其不足者”<靈樞·熱病><sup>15)</sup>

熱病에 부족한 陰分은 補하고 實한 陽分을 瀉하는 治法의 根據를 氣口와 人迎에서 찾고 있다.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名曰平人 人迎大一倍于寸口 病在足少陽 一倍而躁 在手少陽 人迎二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倍 病在足陽明 三倍而躁 病在手陽明 盛則爲熱, 虛則爲寒, 緊則爲痛痺, 代則乍甚乍間. 盛則瀉之, 虛則補之, 緊痛則取之分肉, 代則取血絡具飲藥,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名曰經刺. 人迎四倍者,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死不治. 必審按其本末, 察其寒熱, 以驗其藏府之病. 寸口大于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寸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躁, 在手少陰. 寸口三倍, 病在足太陰, 三倍而躁, 在手太陰. 盛則脈

13)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54.

14)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57.

15)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6.

滿, 寒中食不化, 虛則熱中, 出糜, 少氣, 溺色變, 緊則痛痺, 代則乍痛乍止. 盛則瀉之, 虛則補之, 緊則先刺而後灸之, 代則取血絡而後調之, 陷下則徒灸之, 陷下者, 脈血結于中, 中有著血, 血寒, 故宜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寸口四倍者, 名曰內關, 內關者, 且大且數, 死不治.” <靈樞·禁服>16)

寸口는 中을 人迎은 外를 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氣口, 人迎의 차이가 약간 있을 경우를 정상인으로 보았으며, 人迎이 盛한 경우에 病이 陽經에 있고, 氣口가 盛한 경우에 病이 陰經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각각의 脈象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症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氣口와 人迎은 陰陽의 調和를 測定하는 기준이 되며, 각각 陰分과 陽分의 病을 살피는 診斷點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切其脈口 滑小緊以沈者 病益甚 在中. 人迎氣大緊以浮者 其病益甚 在外. 其脈口 浮滑者 病日進. 人迎 沈而滑者 病日損. 其脈口滑以沈者 病日進 在內. 其人迎脈滑盛以浮者 其病日進 在外. 脈之浮沈及人迎與寸口氣小大等者 病難已 病之在藏. 沈而大者 易已 小爲逆 病在府. 浮而大者 其病易已. 人迎盛堅者 傷於寒. 氣口甚堅者 傷於食” <靈樞·五色>17)

氣口와 人迎의 비교를 활용하여 內外의 病을 살피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氣口の 緊盛은 傷食을 人迎의 緊盛은 傷寒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8)</sup>.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 <靈樞·陰陽二十五人>19)  
寸口와 人迎을 근거로 陰陽을 調和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人病 其寸口之脈 與人迎之脈小大等 及其浮沈等者 病難已也” <靈樞·論疾診尺>20)

人迎과 寸口가 모두 盛하거나 약한 경우 그 病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陰陽俱盛 혹은 陰陽俱衰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內經>의 氣口人迎脈을 살펴본 결과 氣口는 手太陰肺經의 寸口脈을 지칭하며 寸口, 脈口, 氣口 등으로 다양하게 標記되고 있으며, 人迎은 足陽明胃經의 人迎脈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氣口人迎의 역할은 서로를 비교하여 氣血의 升降程度, 陰陽의 調和程度, 有餘症인지 不足症인지, 陰經의 病인지 陽經의 病인지, 內傷인지 外感인지 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難經>의 氣口人迎脈

“經脈者 行血氣 通陰陽 以營於身者也. 其始終中焦 注手太陰陽明 陽明注足陽明太陰 太陰注手少陰太陽 太陽注足太陽少陰 少陰注手心主少陽 少陽注足少陽厥陰 厥陰復還注手太陰 別絡十五 皆因其原如環無端 轉相溉灌 朝於寸口·人迎 以處百病 而決死生也. 明知終始 陰陽定矣 何謂也 然 終始者 脈

降, 陰陽의 調和, 邪氣의 有餘不足, 陰經·陽經 등의 모든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하며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23-524.

17)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26-527.

18) <內經>의 내용들을 考察할 때 氣口脈으로 內傷을 살피고 人迎脈으로 外感을 살핀다는 내용은 氣血의 升

19)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63.

20)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1.

之紀也 寸口·人迎 陰陽之氣 通於朝使 如環無端 故曰始也 終者 三陰三陽之脈絕 絕則死 死各有形 故曰終也”<二十三難>21)

獨取寸口の 정신이 완성되어가는 중에도 寸口뿐만 아니라 人迎도 經脈의 순환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難經>의 時期까지 人迎을 寸口脈에 比定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3) <脈經>의 氣口人迎脈

“魂魄毅神 皆見寸口 左主司官 右主司府 左大順男 右大順女 關前一分 人命之主 左爲人迎 右爲氣口 神門訣斷, 兩在關後, 人無二脈, 病死不愈”<脈經·兩手六脈所主五藏六腑陰陽逆順>22)

左關一分處가 人迎이 되고 右關一分處가 氣口가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곳이 人命을 살피는 중요한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23). 특이한 점은 關脈과 尺脈의 中間을 神門이라 하여 豫候判斷의 중요한 곳으로 規定하고 있는 점이다.

“人病 其寸口之脈與人迎之脈 大小急浮沈等者 病難已”<脈經·診病將差難已脈>24)

<內經>에서 말한 것처럼 氣口와 人迎이 함께 病이 든 경우 豫候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心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實者 手厥陰經也. 病苦肺 大便不利 腹滿四肢重 身熱 苦胃脹 刺三里.

[心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虛者 手厥陰經也. 病苦悸恐不樂 心腹痛 難以言 心如寒狀 恍惚. [小腸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陽實者 手太陽經也. 病苦身熱 熱來去 汗出而煩 心中滿 身重 口中生瘡. [小腸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陽虛者 手太陽經也. 病苦髮際偏頭痛 耳頰痛. [心小腸俱實]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陽俱實者 手少陰與太陽經俱實也. 病苦頭痛身熱 大便難 心腹煩滿 不得臥 以胃氣不轉 水穀實也. [心小腸俱虛]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陽俱虛者 手少陰與太陽經俱虛也. 病苦寒 少氣 四肢厥 腸澀洞泄. [肝實] 左手關上脈陰實者 足厥陰經也. 病苦心下堅滿 常兩脇痛 自忿忿如怒狀. [肝虛] 左手關上脈陰虛者 足厥陰經也. 病苦脇下堅 寒熱 腹滿不欲飲食 腹脹悒悒不樂 婦人月經不利 腰腹痛. [膽實] 左手關上脈陽實者 足少陽經也. 病苦腹中氣滿 飲食不下 咽乾頭重痛 酒酒惡寒 脇痛. [膽虛] 左手關上脈陽虛者 足少陽經也. 病苦眩厥痿足指下不能搖 蹠坐不能起 僵仆目黃 失精眩暈. [肝膽俱實] 左手關上脈陰陽俱實者 足厥陰與少陽經俱實也. 病苦胃脹嘔逆 食不消. [肝膽俱虛] 左手關上脈陰陽俱虛者 足厥陰與少陽經俱虛也. 病苦恍惚 尸厥 不知人 妄見 少氣不能言 時時自驚. [腎實]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 足少陰經也. 病苦膀胱脹閉 小腹與腰脊相引痛.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 足少陰經也. 病苦舌燥咽腫 心煩 咽乾 胸脇時痛 喘咳汗出 小腹脹滿 腰背強急 體重骨熱 小便赤黃 好怒好忘 足下熱疼 四肢黑 耳聾. [腎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者 足少陰經也. 病苦心中悶 下重 足腫不可以按也. [膀胱實]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陽實者 足太陽經也. 病苦逆滿 腰中痛 不可俛仰勞也. [膀胱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陽虛者 足太陽經也. 病苦脚中筋急 腹中痛引腰背不屈伸 轉筋 惡風 偏苦 腰痛外踝後痛. [腎膀胱俱實]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陽俱實者

21)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9-20.

22)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2.

23) 단순히 “左人迎 右氣口”라 하여 左側寸口脈 전체를 人迎脈으로 보고 右側 寸口脈 전체를 氣口脈으로 보는 견해는 문헌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4)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33.

足少陰與太陽經俱實也。病苦脊彊反折 載眼 氣上搶心 脊痛 不能自反側。[腎膀胱俱虛]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陽俱虛者 足少陰與太陽經俱虛也。病苦小便利 心痛 背寒 時時少腹滿。[肺實]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實者 手太陰經也。病苦肺脹 汗出若露 上氣喘逆 咽中塞 如欲嘔狀。[肺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虛者 手太陰經也。病苦少氣不足以息 噎乾 不朝津液。[大腸實]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陽實者 手陽明經也。病苦腹滿 善喘欬 面赤身熱 喉咽 中如核狀。[大腸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陽虛者 手陽明經也。病苦胸中喘 腸鳴 渴渴 唇口乾 目急 善驚 泄白。[肺大腸俱實]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陽俱實者 手太陰與陽明經俱實也。病苦頭痛 目眩 驚狂 喉痺 痛 手臂捲 唇吻不收。[肺大腸俱虛]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陽俱虛者 手太陰與陽明經俱虛也。病苦耳鳴嘈 時妄見光明 情中不樂 或如恐怖。[脾實] 右手關上脈陰實者 足太陰經也。病苦足寒脛熱 腹脹滿 煩擾不得臥。[脾虛] 右手關上脈陰虛者 足太陰經也。病苦泄注 腹滿 氣逆 霍亂 嘔吐 黃疸 心煩不得臥 腸鳴。[胃實] 右手關上脈陽實者 足陽明經也。病苦腹中堅痛而熱 汗不出 如溫瘧 唇口乾 善噦 乳癰 缺盆腋下腫痛。[胃虛] 右手關上脈陽虛者 足陽明經也。病苦脛寒 不得臥 惡寒洒洒 目急 腹中痛 虛鳴 時寒時熱 唇口乾 面目浮腫。[脾胃俱實] 右手關上脈陰陽俱實者 足太陰與陽明經俱實也。病苦脾脹腹堅 搶脇下痛 胃氣不轉 大便難 時反泄利 腹中痛 上衝肺肝 動五臟 立喘鳴 多驚 身熱 汗不出 喉痺 精少。[脾胃俱虛] 右手關上脈陰陽俱虛者 足太陰與陽明經俱虛也。病苦胃中與空狀 少氣不足以息 四逆 寒 泄注不已。[腎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 足少陰經也。痛苦痺 身熱 心痛 脊脇相引痛 足逆熱 煩。[腎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者 足少陰經也。病苦足脛小弱 惡風寒 脈代絕 時不至 足寒 上重下

輕 行不可以按地 少腹脹滿 上搶胸脇 痛引肋下。[膀胱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陽實者 足太陽經也 病苦轉胞 不得小便 頭眩痛 煩痛 脊背僵。[膀胱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陽虛者 足太陽經也。病苦肌肉 振動 脚中筋急 耳聾忽忽不聞 惡風 颼颼作聲。[腎膀胱俱實]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陽俱實者 足少陰與太陽經俱實也。病苦癲疾 頭重 與目相引痛厥 欲起走 反眼 大風 多汗。[腎膀胱俱虛]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陽俱虛者 足少陰與太陽經俱虛也。病苦心痛 若下重不自收 篡反出 時時苦洞泄 寒中泄 腎心俱痛。一說云 腎有左右 而膀胱無二 今用當以左腎合膀胱 右腎合三焦 <脈經·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25)

人迎은 左寸부와 左關부의 경계로 氣口는 右寸부와 右關부의 경계로 神門은 兩關부와 尺부의 경계로 比定하고 있다.

“足陽明之脈…盛者 則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則人迎反小於寸口也”

<脈經·胃足陽明經病證>26)

“手太陰之脈…盛者 則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

<脈經·肺手太陰經病證>27)

“手陽明之脈…盛者 則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則則反小於寸口也。”

<脈經·大腸手陽明經病證>28)

“足少陰之脈…盛者 則寸口大再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

<脈經·腎足少陰經病證>29)

25)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p.39-51.

26)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27.

27)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35.

28)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38.

29)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44.

“足太陽之脈…盛者則人迎大再倍於寸口 虛者則人迎反小於寸口也”

<脈經·膀胱足太陽經病證><sup>30)</sup>

“手少陽之脈…盛者則人迎大一倍於寸口 虛者則人迎反小於寸口也”

<脈經·三焦手少陽經病證><sup>31)</sup>

위의 句節들은 <內經>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脈經>에서 氣口·人迎의 부위는 비록 寸口部位로 比定하였지만, 그 기능은 <內經>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句節들은 人迎은 陽經의 상태를 寸口는 陰經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내용이다.

“熱病三日 氣口靜 人迎躁者 取之諸陽五十九刺以瀉其熱 而出其汗 實其陰 以補其不足.”<脈經·病可刺證><sup>32)</sup>

이 句節 또한 <內經>에 나오는 내용인데 人迎에서 陽分の 熱證을 알아내고 氣口는 그와 반대로 陰證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脈經>에서는 寸部和 關部の 사이를 氣口人迎. 關部和 尺部 사이를 神門으로 比定하여 氣血升降, 陰陽調和, 升降濁의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脈經>의 이와같은 기능들은 <內經>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 2. 關脈의 形成過程

### 1) <難經>의 關脈<sup>33)</sup>

“脈有尺寸 何謂也 然 尺寸者 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中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始終 一寸九分 故曰尺寸也”<二難><sup>34)</sup>

처음으로 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의 寸口脈처럼 關脈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이 關은 단지 寸과 尺의 경계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이 關에서는 陰氣와 陽氣가 升降하는 關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然, 關之前者 陽之動 脈當見九分而浮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上魚爲溢 爲外關內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脈當見一寸而沈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 故曰覆溢 是其眞藏之脈 人不病而死也”<三難><sup>35)</sup>

여전히 關脈의 부위는 定하지 않고 關의 前部를 陽氣가 主하고 後部를 陰氣가 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關을 따라 陰陽의 氣運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할 때 病이 되며 심하면 死脈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難經>에서 제시하고 있는 關의 의미를

33) <內經>에는 寸口脈을 구분하여 診斷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關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없다. 獨取寸口の 정신이 처음 제시된 <難經>에서 비로소 關脈이 등장한다.

34)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

35)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

30)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47.

31)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49.

32)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322.



考察해 보면 <難經>의 關은 현재의 中焦의 상태를 살피는 關脈의 의미가 아니라, 淸氣와 濁氣, 陽氣와 陰氣의 경계를 이루는 橫膈膜, 半表半裏, 少陽의 의미를 대신하는 關門이란 의미를 가진 부위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難經> 關脈의 역할은 <脈經>의 關前一分處에 속하는 氣口人迎脈의 역할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難經>의 關은 陽寸과 陰尺의 경계이고, <脈經>의 氣口, 人迎은 寸部和 關部의 경계로 比定된 것을 고려할 때, <脈經>에서 氣口人迎을 寸口脈에 比定하는 과정에 <難經>의 關의 의미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脈經>의 關脈

“從魚際至高骨 卻行一寸 其中 名曰寸口 從寸至尺 名曰尺澤 故曰尺寸 寸後尺前 名曰關 陽出陰入 以關爲界 陽出三分 陰入三分 故曰三陰三陽 陽生於尺 動於寸 陰生於寸 動於尺 寸主射上焦 出頭及皮毛 竟手 關主射中焦 腹及腰 尺主射下焦 少腹至足”<脈經·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sup>36)</sup>

獨取寸口的 精神은 <難經>에서 提示되고 있지만, 獨取寸口가 完成되어 近代脈診學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脈經> 이후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考察한 바의 같이 <難經>에서는 寸關尺三部에 부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재와 같이 三焦의 의미를 寸口脈에 그대로 상징화하고 그에 따른 臟腑配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7)</sup>. <脈經>에서는 寸部の 九分에서 三分을 나누고 尺部の 一寸에서 三分을 나누어 關脈의 부위

를 설정하였고, 그 결과 寸六分 關六分 尺七分의 부위를 각각 排定할 수 있었다. 또 寸部에서는 上焦를 關部에서는 中焦를 尺部에서는 下焦를 살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臨床적으로 寸口脈診을 통하여 上中下 三焦의 脈을 살피고자 할 때는 <脈經>의 寸關尺 定位를 따라야 하고, 氣血의 循環程度, 陰陽의 調和程度, 升淸降濁의 程度 등 전체적인 人體의 氣血循環 상태를 살피고자 할 때는 <難經>의 關門, <脈經>의 氣口人迎의 脈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up>38)</sup>.

## III. 考察 및 結論

- 1) <內經>에서 氣口人迎脈은 각각 手太陰肺經과 足陽明胃經의 脈動處로 그 위치가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서로를 비교하면서 氣血의 升降程度, 陰陽의 調和程度, 有餘症인지 不足症인지, 陰經의 病인지 陽經의 病인지, 內傷인지 外感인지 등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2) <脈經>에 이르러 寸口脈法이 확립되면서 氣口와 人迎은 각각 右關前一分處와 左關前一分處에 比定된다. 아울러, 臟腑六脈診法에서는 氣口, 人迎, 神門이 寸關尺의 境界 역할을 한다. 그곳에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內經>과 마찬가지로 氣血의 升降程度, 陰陽의 調和程度, 有餘症인지 不足症인지, 陰經의 病인지 陽經의 病인지, 內傷인지 外感인지 등이다.

36)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5.

37) <難經>에서도 寸口部位에 臟腑를 配屬하기는 하였지만, 脈의 浮沈에 따른 臟腑配屬만이 있을 뿐 寸關尺 臟腑定位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8) 臨床적으로 高骨의 바로 옆 부분에 解剖學的으로 가늘게 높이 솟아 올라 있는 부분은 人體의 橫膈膜을 象徵하므로 <難經>의 關部이자 <脈經>의 氣口人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되며, 中焦의 臟器인 脾胃, 肝膽을 배속한 <脈經>의 關脈에 해당하는 부위는 高骨 옆에서 약간 뒤쪽에 配屬된다고 思料된다.

- 3) <難經>에서는 關이 陰陽升降의 關門으로서 分別清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橫膈膜을 象徵化하여 陰氣와 陽氣의 循環程度를 파악하는 境界만을 의미하고 그 部位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4) <難經>의 關이 陽寸과 陰尺의 境界 역할을 하는 점과 <脈經>의 氣口, 人迎이 寸部和 關部の 境界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기능이 <脈經>의 氣口人迎과 一致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難經>의 關은 <內經>의 氣口·人迎이 <脈經>의 氣口人迎으로 轉化되는 中間 過程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寸口脈에 三焦를 象徵化하여 배속하고자 할 때는 <脈經>에서 제시된 關脈의 의미를 따라야 하고, 寸口脈으로 陰氣와 陽氣의 升降, 循環을 살피고자 할 때는 <難經>의 關, <脈經>의 氣口人迎의 의미를 따라야 한다.
- 6) 臨床적으로 高骨의 바로 옆 부분에 解剖學的으로 가늘게 높이 솟아 올라 있는 부분은 人體의 橫膈膜을 象徵하므로 <難經>의 關部이자 <脈經>의 氣口人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되며, 中焦의 臟器인 脾胃, 肝膽을 배속한 <脈經>의 關脈에 해당하는 부위는 高骨 옆에서 약간 뒤쪽에 位置한다고 思料된다.
4.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 참 고 문 헌

1.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2.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